

노인의 삶의 질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최현석¹ · 하정철²

¹²계명대학교 통계학과

접수 2012년 4월 30일, 수정 2012년 5월 18일, 게재확정 2012년 5월 25일

요약

본 연구는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년 노인실태조사'에서 얻어진 노인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을 이용하여 노인의 삶의 질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은 자아개발, 새로운 경험추구, 유행과 소비추구, 미래계획으로 이루어진 노후활동희망 요인과 동년배 비교행복감, 생활전반 만족도, 미래희망, 현재의 행복감으로 이루어진 자아통합감 요인, 가족의 노인의존중, 연장자의 지혜, 가족관계 추구의 세대간조화의 3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노후활동희망이 높을수록, 자아통합감이 높을수록, 세대간조화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자아통합감, 세대간조화, 노후활동희망의 순서로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노인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도움이 되는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용어: 구조방정식모형, 노후준비, 삶의 만족도, 삶의 질.

1. 서론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는 노인복지의 실현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세대의 배경특성 중 젊은 세대와 비교해 두드러지게 다른 점으로 제기되는 것은 교육기회의 상대적 취약성이다. 우리나라 젊은 세대의 교육수준은 OECD가입국들 중 최상이나 한국 노인들의 교육수준은 상대적, 절대적 수준에서 국제적, 국내적으로 매우 낮다고 하였다 (이정의, 2010).

'2008년 노인실태조사'에서도 초졸 이하인 노인이 64%, 수입이 50만 원 미만인 노인이 57.2%를 차지하는 등 교육기회의 상대적 취약성과 낮은 소득이 전반적인 노후준비부족과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선진국과 같이 노인부양 및 보호문제,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에 의한 사회와 경제의 활력저하문제, 의료 및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비용 증대 문제, 그리고 다양한 노인문제 발생들이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은희, 2009).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노후준비가 필요하다. 자식들이 자신보다 나은 삶을 누리도록 생활하느라 노인들은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노후준비는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을 때부터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경제적 준비, 건강한 신체, 여가활동 준비를 하여야 한다. 교육수준이 높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노인들만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에서도 노후생활과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노인복지의 실현이 이루어져야 한다. 준비된 노후생활이야말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¹ (704-701)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000번지, 계명대학교 통계학과, 초빙전임강사.

² 교신저자: (704-701)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000번지, 계명대학교 통계학과, 부교수.

E-mail: jeicy@kmu.ac.kr

1980년대 이후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수년 간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연구한 것으로 (권중돈과 조주연, 2000; 권철 등, 2006; 유정이, 2006; 배나래과 박충선, 2009; 이정희, 2010; 홍종선 등, 2012)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는 세 요인으로 묶인 노인 자신의 삶에 대한 질문을 통해 삶의 질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삶의 질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과 선행연구를 설명하고 3절에서는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4절에서는 연구가설에 대해 실증분석하고, 마지막으로 5절에서 결론을 내린다.

2. 이론적 배경

성공적으로 노후생활을 영위하려면 사회관계망 유지, 노후소득 준비, 사회활동 참여가 중요하다 (김경호와 김지훈, 2009). 삶의 만족도에는 건강상태, 사회활동, 자녀지지, 경제상태와 같은 삶의 객관적 특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환, 2010). 이와 같이 활기찬 노후는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노인은 노후준비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자녀들의 양육, 교육비 부담,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노후준비 없이 노년을 맞이한다. 준비 없는 노후로 인하여 생활비를 위해 노년 까지 일을 해야 하거나 자녀들의 경제적 도움을 바라는 등 경제적 준비가 미흡한 상태이다. 소득 부분에서도 근로소득, 금융소득, 연금 등을 수급하고 있으면 생활전반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통수당, 장애수당, 경로연금과 같은 소득원이 있는 집단은 생활전반에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현석과 하정철, 2012).

학자들마다 삶의 질에 대한 개념은 주장하는 바가 다르며 관심영역에서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삶의 질은 신체적·경제적·정서적·사회적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삶의 질이란 매우 포괄적이며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공적인 노후 생활이란 생활 전반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복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상태 내지는 삶의 만족감을 누리며 생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배나래와 박충선, 2009).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제도는 생존과 관련된 욕구는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있지만 노인복지제도의 궁극적 목적인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는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권중돈과 조주연, 2000). 과거에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노후’ 중심의 개념이었던 성공적인 노후생활이 현재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의 수준이 높고 삶의 만족이 높은 상태’로 바뀌었다. 기존연구에 의하면 삶의 만족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배우자유무, 신체건강, 정신건강, 경제활동, 여가활동, 경제수준, 교육수준, 사회활동 등 다양하다 (권철 등, 2006; 신현구, 2007; 유정이, 2006; 이주영과 문재우, 2011).

본 연구는 노인 자신의 삶에 대한 질문을 이용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요인으로 분류하여 노후활동 희망, 자아통합감, 세대간조화의 세 요인으로 분류하고 각 요인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알아본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이주영과 문재우 (2011)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 250명을 대상으로 우울, 불안의 정신건강,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경로분석을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우울, 불안, 사회적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기만과 박현주 (2010)는 청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322명을 대상으로 종교활동과 사회활동, 우울, 죽음불안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울, 죽음불안, 사회활동참여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교활동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완 (2010)은 노동연구원의 고령화연구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노인 3,798명의 대상으로 건강상태, 경제상태, 자녀지지, 사회적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008년 노인실태조사 기본조사 사용자 안내서>에는 원자료의 변수가 1004개로 나와 있고 그 중 노인 자신의 삶에 대한 질문문항은 노후 희망 활동 (5문항), 자아통합감 (10문항), 변화되어 가는 노인의 이미지와 자아인식 (8문항), 기타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만점으로 응답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 2009).

본 연구는 남기만과 박현주 (2010), 신창완 (2010), 이주영과 문재우 (2011), 2008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그림 3.1과 같은 모형을 제시하여 노인의 삶의 질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노후생활과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노인 자신의 삶에 대한 질문	⇒	삶의 만족도
자아개발, 새로운 경험 추구, 유행과 소비 추구, 여가 및 취미활동, 미래계획, 동년배 비교 행복감, 생활전반 만족도, 미래희망, 현재의 행복감, 가족의 노인의존중, 연장자의 지혜, 가족관계 추구		동거자녀· 비동거자녀· 손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친인척· 친구· 이웃과의 관계, 경제상태, 현재 하는 일, 건강상태, 의료서비스, 여가 및 사회활동, 가구형태, 가족내 의존중, 생활 전반, 주거 편리성, 거주 지역 안전성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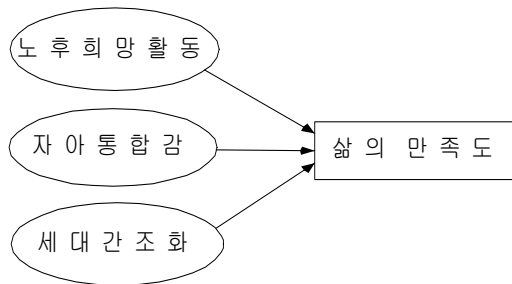


그림 3.1 연구 방법

노인 자신의 삶에 대한 질문은 2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측정척도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시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고유값, 누적분산비율, 신뢰도, 요인적재값을 확보하여 요인분석이 타당하게 이루어진 것을 확인한 후 측정변수들과 요인들 간의 관계가 성립하는지 그 타당성 검정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모든 요인의 개념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가 기준을 만족하는 11개의 문항만 선택하였고 (4.2.1절) 그 구체적인 문항내용과 키워드는 아래와 같다.

- 아직도 배우고 싶은 운동이나 취미가 많다 (자아개발)
- 외국을 여행하거나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다 (새로운 경험 추구)
- 새로 나온 상품이나 유행에 관심이 많다 (유행과 소비를 추구)
- 앞으로 내가 할 일을 이미 계획하고 정해 놓았다 (미래에 대한 계획)

- 나는 연배가 비슷한 다른 사람에 비해 행복한 편이다 (동년배 비교 행복감)
- 나의 생활전반에 대해 만족한다 (생활전반 만족도)
- 앞으로의 생활에 희망이 있다 (미래희망)
- 지금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이다 (현재 생활의 행복감)
- 가족이나 친척이 나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 (가족의 노인 의견 존중)
- 연장자의 지혜나 경험은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된다 (연장자의 지혜)
- 자식이나 손자녀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가족관계 추구)

삶의 만족도는 가족 및 사회적 관계와 상호지원 영역에서, 경제상태 영역, 경제활동 영역, 건강 및 보건의료서비스 영역, 여가 및 사회활동 영역, 생활환경 영역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문항 점수의 합을 응답한 문항수로 나눈 문항 평균 (5점 만점)을 삶의 만족도 점수로 사용하였다.

3.2. 가설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연구모형 및 가설을 검증하였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분석으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노인 자신의 삶에 대한 질문을 요인으로 묶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노후활동희망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자아통합감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세대간조화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실증분석

4.1. 표본자료

본 연구는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노인의 생활현황과 보건복지상태의 변화 추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제시하여 노인 정책 수립과 시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08년 4월 15일에서 2009년 2월 28일까지 만 60세 이상 노인 개인 15,146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자녀 유무 및 동거유형,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와 상호지원, 경제상태, 경제활동, 건강상태, 건강행태, 의료서비스 이용, 기능상태 및 간병수발실태, 여가 및 사회활동, 노인복지서비스, 노후생활과 삶의 질, 생활환경의 영역 등 노인의 생활 전반에 대하여 조사되었다 (보건복지가족부, 2009).

표 4.1은 본 조사에 사용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여준다. 성별로는 남성 42.6%, 여성 57.4%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60세에서 64세미만이 28.7%, 70세 미만이 27.1%, 74세 미만이 20.3%, 79세미만이 12.6%이고 85세 미만은 6.9%, 85세 이상은 4.5%이다. 교육수준은 무학이 26.3%, 초졸이 37.7%, 중졸이 14.9%, 고졸이 13.4%, 대졸이 7.7%로 초졸 이하의 비중이 64%를 차지하였다

표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항목	빈도	비율
성별	남성	6,452	42.6
	여성	8,694	57.4
연령	60세~64세	4,348	28.7
	65세~69세	4,098	27.1
	70세~74세	3,069	20.3
	75세~79세	1,901	12.6
	80세~85세	1,043	6.9
	85세 이상	687	4.5
교육수준	무학 (글자모름)	1,792	11.8
	무학 (글자해독)	2,192	14.5
	초졸	5,717	37.7
	중졸	2,251	14.9
	고졸	2,024	13.4
	전문대졸/대졸이상	1,169	7.7
개인월소득총액	50만원 미만	8,643	57.2
	50만원~100만원	3,161	20.9
	100만원~200만원	2,257	14.9
	200만원~300만원	621	4.1
	300만원 이상	440	2.9

4.2. 연구모형 분석

노인 자신의 삶에 대한 질문을 노후활동희망, 자아통합감, 세대간조화의 세 요인으로 분류하여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 (structural equation model)으로 분석하였다.

4.2.1. 항목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들 중 잠재요인들의 속성을 나타내는 변수를 선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관련된 변수들을 단순화하여 각 요인의 특성을 잘 구분하기 위한 요인추출 방법으로 주성분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요인 수 결정방법은 고유값이 1 이상이고, 누적분산비가 60%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구성하였으며, 요인회전 방법으로는 요인들 간의 상호독립성을 유지하는 직각회전 (orthogonal rotation) 방법 중에서 베리맥스 (varimax) 방법을 사용하였다. 잠재요인들에 대한 내적일관성 확보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크론바하 알파 (Cronbach- α) 값을 계산하여 요인들에 대한 측정변수들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요인적재치가 0.5 이상이며 타 성분에 0.5 이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구성하였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변수를 제거하였다. 그 후, 변수들 중에서 각 요인에 적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제거하여 25개 문항 중 11개 문항만으로 요인을 나누었다.

요인분석결과 3개의 요인으로 묶였으며 자아개발, 새로운 경험추구, 유행과 소비추구, 미래계획으로 이루어진 노후활동희망 요인과 동년배 비교행복감, 생활전반 만족도, 미래희망, 현재의 행복감으로 이루어진 자아통합감 요인, 가족의 노인의견존중, 연장자의 지혜, 가족관계 추구의 세대간조화의 3개의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표 4.2).

표 4.2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요인	변수	요인적재값	고유값	분산율	신뢰도
노후활동희망	자아 개발	0.771	4.324	39.310%	0.775
	새로운 경험추구	0.762			
	유행과 소비추구	0.720			
	미래계획	0.676			
자아통합감	동년배 비교 행복감	0.776	1.431	13.006%	0.806
	생활전반 만족도	0.747			
	미래희망	0.738			
	현재의 행복감	0.696			
세대간조화	가족의 노인의 존중	0.771	1.082	9.838%	0.647
	연장자의 지혜	0.742			
	가족관계 추구	0.696			

4.2.2. 연구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변수와 요인 간의 타당성이 검증되었으나 변수 간의 관계와 오차부분을 고려한 보다 정교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모델의 적합도를 판단하고 요인의 신뢰성과 타당도를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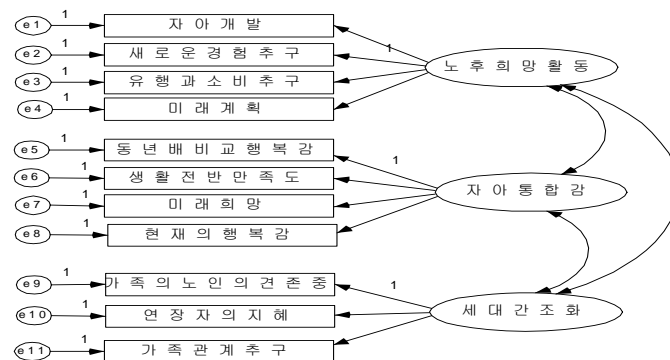


그림 4.1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의 자료가 가정된 구조방정식 모형에 얼마나 잘 적합되는지 살펴보자. 적합도 지수의 χ^2 은 92.25, 유의확률이 0.000으로 연구모형은 모집단 자료에 적합하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나, χ^2 을 자유도로 나눈 Q지수가 2.25로 3이하라는 기준에 만족하므로 연구모형은 모집단 자료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GFI는 0.969, NFI는 0.954, RMR은 0.034로 기준을 만족하므로 좋은 모델로 판단할 수 있다.

잠재요인의 타당성은 잠재요인과 측정변수간의 일치성 정도에 관한 것으로 개념신뢰도, 분산추출지수, 판별타당성으로 평가된다. 개념신뢰도는 측정변수의 내적일관성을 측정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0.7이상이면 신뢰성을 갖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분산추출지수는 잠재요인에 대해 측정변수가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0.5이상이면 신뢰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Fornell과 Lacker, 1981)

분석 결과 모든 잠재요인에서 개념신뢰도, 분산추출지수가 임계치 이상이므로 잠재요인의 타당성이 확보되었으므로 실증모형을 구축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4.3).

표 4.3 잠재요인의 타당성

요인	변수	표준화추정값	측정오차	개념신뢰도	분산추출지수
노후활동희망	유행과소비추구	0.575	0.552	0.795	0.500
	새로운경험추구	0.747	0.478		
	자아개발	0.778	0.384		
	미래계획	0.620	0.499		
자아통합감	동년배비교행복감	0.806	0.301	0.836	0.567
	생활전반만족도	0.825	0.23		
	미래희망	0.552	0.651		
	현재의행복감	0.699	0.443		
세대간조화	가족의노인의존중	0.820	0.205	0.752	0.516
	가족관계추구	0.473	0.549		
	연장자의지혜	0.602	0.428		

판별타당성은 한 잠재요인이 실제로 다른 잠재요인과 얼마나 다른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각 요인 간의 판별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행렬과 분산추출지수와와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표 4.4). 각 요인의 분산추출지수와 상관계수를 비교한 결과, 대각선의 분산추출지수보다 상관계수의 제곱값이 모두 작아 모든 잠재요인은 판별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Fornell과 Lacker, 1981).

표 4.4 상관계수와 분산추출지수

	노후활동희망	자아통합감	세대간조화
노후활동희망	0.500		
자아통합감	0.628	0.567	
세대간조화	0.440	0.607	0.516

4.2.3.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자료가 가정된 구조방정식 모형에 얼마나 잘 적합되었는지 적합도지수를 살펴보면 GFI는 0.967, NFI는 0.956, RMR은 0.033로 일반적인 적합도기준치와 비교할 때 수용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정한 구조방정식모형의 분석결과로 얻어진 경로도는 그림 4.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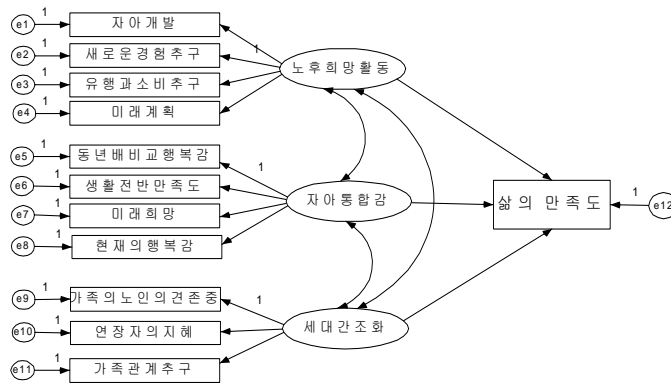


그림 4.2 연구모형의 경로도

구조방정식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표 4.5와 같다.

표 4.5 가설검정결과

가설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t값	p값
노후활동희망→삶의 만족도	0.032	0.003	9.664	p<0.001
자아통합감→삶의 만족도	0.391	0.004	95.29	p<0.001
세대간조화→삶의 만족도	0.163	0.004	36.29	p<0.001

노후활동희망과 삶의 만족도는 경로계수 값이 0.032 (t 값=9.664)으로 노후활동희망이 삶의 만족도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노후활동희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영역의 활동이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제공할 뿐 아니라 노년기를 풍부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자아통합감과 삶의 만족도는 경로계수 값이 0.391 (t 값=95.29)로 자아통합감이 삶의 만족도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통합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세대간조화와 삶의 만족도는 경로계수 값이 0.163 (t 값=36.29)으로 세대간조화가 삶의 만족도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세대간조화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가족간의 밀접한 관계, 다양한 연령층과의 접촉 등 세대간의 유대적 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삶을 만족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노후활동희망, 자아통합감, 세대간조화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며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욕구 충족을 위한 배려와 관심, 사회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삶의 질을 통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노인 중에서 초졸 이하가 64%, 월수입이 50만원미만이 57.2%를 차지하는 등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소득이 낮은 경우가 많았다.

둘째, 노후활동희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새로운 영역의 활동을 실천하는 것은 노년기를 풍부하게 할 수 있으므로 TV시청이나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적극적 사회참여로 활력 있는 노후생활과 사회적으로 노인을 사회 부양의 대상이 아닌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한다.

셋째, 동년배 비교행복감, 생활전반 만족도, 미래희망, 현재의 행복감으로 이루어진 자아통합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노인들의 주관적 인식, 자아실현욕구의 충족이라고 하는 질적인 측면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세대간조화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다양한 연령층과의 접촉과 가족과 밀접한 거리를 가지고 있는 노인은 삶의 만족도가 높으므로 세대간의 유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08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는 표본설계 가중치를 함께 적용하여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구조방정식모형의 경우 표본설계 가중치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분석자료가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해야한다. 그러나, 표본조사가 일부 계층에 편중된 것이 아니라 전국규모로 15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활동으로는 건강한 신체, 경제적 준비, 화목한 가족관계, 종교 활동, 친구관계, 여가활동 등을 원하나 노후준비여부에 따라 희망활동이 다르므로 정부에서는 개개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교육수준이 낮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계층의 노인복지향상과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정책수립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관리, 경제활동 지원, 노인여가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정보화 취약계층인 노인층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중돈, 조주연 (2000).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0**, 61-76.
- 권철, 남철현, 황해석, 정한태, 하순희, 민경진, 김순 (2006).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보건연구>, **32**, 66-74.
- 김경호, 김지훈 (2009). 한국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요인의 구조분석. <한국노년학>, **29**, 71-87.
- 남기만, 박현주 (2010). 노인의 종교활동과 사회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죽음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49**, 405-429.
- 배나래, 박충선 (2009). 노년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에 관한연구. <한국노년학>, **29**, 761-779.
-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가족부, 서울.
- 신창환 (2010). 삶의 특성이 노인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0**, 453-469.
- 신현구 (2007). 노동시장 은퇴자의 은퇴만족도 및 삶의만족도. <노동리뷰>, 3월호, 81-93.
- 유정이 (2006). 노인의 연령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 건강, 배우자 요인을 중심으로-. <복지행정연구>, **22**, 241-254.
- 이은희 (2009). <최신노인 복지론>, 서울, 학지사.
- 이정의 (2010). 한국노인의 교육수준별 생활만족 결정요인: 사회적 관계 및 참여, 건강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0**, 709-726.
- 이주영, 문재우 (2011). 노인의 정신건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보건연구>, **37**, 45-57.
- 최현석, 하정철 (2012). 노인의 생활전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3**, 131-142.
- 홍중선, 정충현, 조민호, 김혜정 (2012). 2008년도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의 통계분석.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3**, 13-24.
- Fornell, C. and La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9**, 39-50.

A study on the relations between the quality of life and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Hyun Seok Choi¹ · Jeongcheol Ha²

¹²Department of Statistics, Keimyung University

Received 30 April 2012, revised 18 May 2012, accepted 25 May 2012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the relations between the quality of life and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based on the 2008 national survey data of the actual living condition of the elderly and welfare need. We found that the questions about the quality of life is categorized by three groups such as self consolidation, harmony between generations and hope for later activity, which is the order of the power of the affection to life satisfaction. The result of this paper could be used as a basic document for taking efficient actions for the welfare services to the elderly.

Keywords: Life satisfaction, provision for later life, quality of life,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¹ Full time lecturer, Department of Statistics, Keimyung University, Daegu 704-701, Korea.

²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tatistics, Keimyung University, Daegu 704-701, Korea. E-mail: jeicy@kmu.ac.kr